

# 간호원의 위치에 대한 역사적 고찰(국내)

전 산 초 박사  
(연대 간호대학 교수)

## I. 서 론

본인은 이 연구발표에서 간호원의 좋은 점만 자랑하려거나 그렇다고 나쁜 점만 들추어 내거나 하지 않았다. 역사적 사실 그대로 간호원의 지위를 살펴보고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간호원의 지위에 관한 역사적 연구의 장을 이제 겨우 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해지기 바라며 이 바람은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바이다.

본 주제의 강연을 맡고 준비하는 중 몇가지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첫째로 우리나라 역사 속에 여성의 위치를 찾아 보면 그 속에서 간호원의 위치를 찾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우리나라 여성사를 찾아 해배었다. 그런데 본인은 문헌을 읽으면서 이 생각이 옳았다는 사실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Victor Robinson 이 “간호원은 시대를 통해서 변천된 여성의 위치를 그대로 반영한 거울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었음도 확인했다.

여성문제가 사회문제의 하나이긴 하지만 여성문제를 특별히 취급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며 따라서 간호원의 문제를 따로 다루는 것도 필요하다. 첫째로, 여성의 지위는 전에는 어떠한가? 또 지금은 어떠한가? 또는 장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는 적어도 사회성원의 과반수를 여성인구가 차지하므로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지위의 변화는 위대한 정치적 종교적

이념의 의식적인 전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념이란 그 진리가 그것을 믿고 실행하는 자를 너무나 강하게 사로잡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 입니다. 예를들면 로마제국 말기 기독교 정신에 감화된 여성들의 간호사업의 역사는 그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들이 겪은 우여곡절은 우울한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그 내용인즉 희생적인 기독교 여성들이 그 대상의 제공이나 연령, 성별 또는 종교적 관념에 구애됨이 없이 환자간호에 계속적으로 참여했으나 중국에는 그 사업에서 밀려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었으며 제공의 상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널리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오랜 기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간호원은 풀위와 우아를지닌 전문직업인으로서 부활이 되었던 것이다.

간호원의 위치가 그래도 가장 좋다는 미국의 경우도 간호사업은 남성들의 극성스런 방해로 인해 그 전통적인 봉사 역할과 동시에 전문직으로서의 적절한 지위 획득이 곤란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여성자신이 처해온 상태와 그의 기능에 대하여 고찰하는 일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이는 또한 보다 발전된 여성교육, 사회균등, 경제적,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도 모름지기 이해되고 파악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우리는 여성을 남성으로 부터 구별해 내는 여러가지 특성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특성이란 기술과 지식의 발전단계와 관련된 것과 사회발전 과정에 관련된 것이며,

또한 이 특성들은 역사적 시기별로 달리 해석되어 온 것들이다.

이제 이 역사적 배경을 편의상 4기로 구분하여 각 시대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즉,

제 1기 : 선사, 부족, 고대 고려시대포함

제 2기 : 조선왕조의 시초에서 부터 그 말기 (1910년 이전)까지로 새로운 여성관이 대두되고 근대적인 여성운동이 일어나던 시기.

제 3기 : 조선왕조의 붕괴와 일본의 식민 통치 시대.

제 4기 : 해방과 광복으로부터 자주독립, 한국동란, 그리고 그 이후 경제개발(도시화)을 계기로 급속하게 변화된 현 단계까지를 말한다.

이상의 시대적 배경에 따라 여성의 사회, 경제, 종교, 교육 및 직업의 양상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또한 그 시대속에서의 간호원의 위치는 어떠했는지 역사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 II. 본 론

각 시대의 역사적 변천과 여성의 위치를 사회경제 종교 교육 직업에 따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제 1기

이는 선사시대(先史時代), 부족사회(部族社會) 고대사회(古代社會) 고려시대(高麗時代)를 포함한다.

#### 1) 선사시대(先史時代)

사회 : 인류의 출현시대라 할 수 있으며 태초에는 모계사회였다.

경제 : 남녀 구별없이 생존을 위한 모든 분야, 즉 수렵, 재배, 가공, 사육, 채집에 함께 참여하였다.

종교 : 주술(呪術)이 생활을 지배했으며, 이의식은 주로 여성이 사제(司祭)로서 집행했다. 여성은 풍운의 신(神) 또는 대지의 모신(大地母神)으로 숭배했다. 즉 생산(生産) 및 번식의 신

비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숭배했다.

그들의 여성상(女性像)은 여성의 성적(性的) 힘과 생식능력(生殖能力)을 빌려 인류의 존속과 번영, 그리고 식량증식으로 통하는 것으로 신봉했다.

직업 : 태초에는 양성(兩性)간에 분업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므로 남녀간에 직업상의 차이는 생물학적 특징이나 능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만 사회적,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된 비중이 크다고 역사가들은 언급하고 있다.

오히려 여성은 가정 일 뿐 만 아니라 앞에서 말한 모든 분야에 참여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중노동을 하게 됐다.

### 2) 부족사회(部族社會)

사회 : 금속문화(金屬文化)의 등장으로 부족사회로 전환된 때이며, 남자가 주로 금속문화를 독점하면서 부터 남녀관계가 우애로운 관계속에 평등하게 살아오던것이 지배와 종속 관계로 변화되었으며, 서서히 가부장권이 확립되기 시작했다. 그 원인은 여성이 그 금속문화의 대열에 참여하지 않은 데도 있었으며, "남성의 활동이나 사고에 참여하지 않고 언제나 생명(生命)의 신비에만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바르는 그의 「제 2의 성」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 지금까지의 종교적 관념이 수정되어 주술(呪術) 신봉 속에서는 불가능 하였던 일들이 금속을 사용한 새로운 기술로서 극복되면서 여성의 신비에 관한 관념이 바뀌어 가고, 반면에 인간이 여러모로 실력을 과시하면서 전능자(全能者)로 군림하려고 하게 되었다.

직업 : 이때까지도 여성은 구석기, 신석기시대의 도구를 사용하여 일을 하였다.

### 3) 고대사회(古代社會)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락 통일신라시대 포함)

사회 : 계급주의, 신분체제가 마련되었으며 마가족제도가 강화되고 상속제도는 부족에서 형제상속으로 다시 부계상속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일반 여성은 사회적으로 무시되고 정치참여는 거의 못하는 실정이었으나 특수 여성에 있어서는 그 지위가 당당하여 남녀 차별이란 사실상 어려웠다.

물론 고대사에 관한 자료가 너무나도 희귀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등조를 정확히 기술하기는 어렵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진덕여왕 선덕여왕 등 여성이 임금이 있었던 사회에서 남녀를 차별 짓는다면 오히려 남자의 위치가 이상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도 추정되는 것이다. 또한 고구려 시대에는 폐릴사위제도가 있었으며, 신라 시대는 물론 이조초기까지도 가문에 아들이 없을 때 외손자를 통해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보통이었다.

직업 : 여성의 직업은 주로 칩술, 직조, 염색, 마전 등이었으며 농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남자가 부역을 나가면 여자가 농사를 지어 그 노동력은 남자를 능가하였다.

종교 : 불교가 널리 전파되고 승렸으나 주술과 무속 종교도 여전히 그 밑바탕에 강하게 혼돈되어 있었다.

교육 : 여성에게는 신앙, 가정생활의 도리(道理) 등에 관한 수양과 교육을 했을 뿐이며 여성들은 그대로 처신하도록 강요 당했다.

#### 4) 고려시대(高麗時代)

사회 : 이 시대에는 사회 경제적 치국(治國)의 도(道)를 유교에 두었으며 안심입명((安心立命)(해설 ; 불교용어로서 아미타불에게 귀의하여 마음의 안정된 자리를 정하는 일과 천명을 좇아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뜻이다)은 불교에 두고 풍수지리(風水地理)와 무속신앙과 짝하게 되었다.

또한 상속제도에 있어 딸은 상속권이 없었으며, 사위나 외손이 딸대신 참여할 경우도 있었으나 시대적, 행정적 변화에 따라 재산 상속의 권한이 주어진 때도 있었다. 이 시대에는 남녀가 내외하는 일 없이 자연스럽게 만났고, 열녀상과 더불어 의무상이 똑같이 시행되어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잘한 것을 권장한 것이

아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헌신하는 의무의 관념도 국가의 상으로까지 장려하였던 것은 삼국유사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비도 재산으로 관리하였으며 여종이 쓸모가 있어 더욱 값이 나갔다고 한다.

법적으로는 남성에게는 후하고 여성에게는 모든 면에서 무겁게 다루었다.

종교 : 불교가 주였으며 모든 국가적 행사는 사원에서 이루어졌으나 무속신앙과 유교가 혼합된 것이었다.

직업 : 당시 여성들은 남편의 수입과 자신의 모은 돈을 자본으로 이자놀이를 하여 수입원을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농사의 경우는 여성의 힘이 남성에 못지 않았으며 남편이나 아들이 군인이나 노역에 증발되어 나가면 그 뒷바라지는 여자가 하게 되어 모든 생활을 자급하였다.

여성의 특수 직업으로는 궁녀(宮女), 무녀(巫女), 기녀(妓女) 제도가 있었다.

교육 : 추자학의 도입으로 유교적 도덕관과 윤리관이 강하게 주도되었으며, 제례, 가례 의식을 위한 교과서로서 卜韓國夫人柳氏墓法 등이 있어 여성에게 부덕(婦德)의 실천적 덕목(德目)을 가르쳐 왔다.

#### 2. 제2기 : 조선왕조의 초기에서 부터(1910년) 말기까지

1392년 이성계를 태조로 하는 이성 왕조가 세워지면서 여성 위치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여성사적 측면을 상중·하의 세시대로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상기(上期) : 태조(1392)에서 인조 14년(1636)까지 240년간

중기(中期) : 인조 14년(1636)에서 고종 21년(1884)까지 250년간

하기(下期) : 고종 21년(1884)에서 1910년까지 26년간으로 구분한다.

##### 1) 상 기

사회 : 부덕(婦德)에 특이하여 여성은 사회적으로 규제와 억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절시대

(守節時代)의 전성기라고 하겠다. 즉 ① 여성에게는 외혼의 제한 ② 상가나 제사등에 나가지 못하며 ③ 재혼은 억제당하고 ④ 정절의 미덕등이 제도화 되었다. 그러나 재산상속은 남녀균등하게 하도록 되어 있어 여성 억압책과 배조를 이루었다.

교육: 여성의 지식 수준은 초기보다 차츰 향상하여 갔으나 교육목표는 정절위주였고 문학예술활동에 눈뜨게 되었다. 허난설헌, 신사임당, 이옥봉, 황진이 등 작계각층에 학문이나 식견이 뛰어난 여성이 많이 배출되었다. 세종 14년(1425)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를 출간하여, 주로 교과서로 사용하면서 초기에는 절개 곧 열(烈)을 중심으로 가르쳤다.

직업: 이시대에는 정치 사회구조상 불가결한 특수 직업 여성이 있었다. 궁녀(宮女), 기녀(妓女), 무녀(巫女), 의녀(醫女) 등이 이에 속하며 이들은 모두 지배층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특수직은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이 중 보건의과 관련된 여성직업인 의녀제도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당시의 직업여성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배조책부터 의녀제도가 생겼고 제도화된 그들의 교육내용도 알려져 있는데, 의녀제도를 둔 본래의 목적은 그 당시 여성의 질병을 남자인 한의 원에게 보일 수 없다는 둔화적 배경때문에 여성의 질병치료에 종사하게 하려는 데 두었다. 그러나 나중 임금이 갈수록 그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일반 기녀와 같은 일도 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지배계층이나 궁중 여성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색과 체포도 다루는 등 그 활동 분야가 광범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녀유별(男女有別)이란 유교적 질서는 의녀들에게 많은 일을 떠맡기게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이 시대의 여성사회에서 질병치료와 병자 돌보는 일, 그리고 범죄의 수사와 죄인의 체포 등, 광범위한 분야에 까지 종사하던 의녀의 사회적 신분은 고작 공천(公賤)에 속하였었다. 우선 설치 당시에 의녀를 관비 중에서 뽑아 내어 교육시켰다는 데에도 그 신분계층은 명백

하게 드러난 셈이다. 사회적으로 의녀는 기녀와 동일한 친인으로서의 대우를 받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의녀의 교육을 충실히 받고 의학의 지식을 탐구하며 의녀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했던 저명한 의녀들도 있었으니 이들은 세종(世宗) 때의 소비(召非), 세조(世祖) 때의 접상(接常), 성종(成宗) 때의 장덕(長德)과 귀금(貴今) 등을 들 수 있다.

의녀제도는 국민건강과 관련된성이 있는 여성직업의 하나라는 이유만으로도 고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사려된다.

## 2) 종 기

사회: 여성의 분가(分家)와 호주상속의 권한이 없어짐은 상대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법적, 경제적 독립성이 없어졌음을 보여주며, 여성의 사회활동에는 남편이나 가장의 허락이 필요했다.

재산상속권은 저하했으며 1592년 임진왜란과 1636년 병자호란은 여성의 수난기였다.

교육: 본래 그 당시의 교육목표는 지, 덕, 체(知, 德, 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에게는 덕육(德育)만이 강요되었고, 가정 예의범절에 중점을 두고 현모양처가 되도록 교육하였다. 체육(體育)은 물론 지육(知育)을 시키기를 꺼렸으며, 여성교육은 가정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여서 여성교육제도나 기관이 전혀 없었다.

직업: 사회적 지위의 발전에 관한 여타가지 이론은 사실과 매우 다른 것으로서 이것의 해명 역시 또한 필요한 일이다. 점점 격렬해지는 운동을 관찰하는데 있어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원인은—여러가지 범위의 사람들과 종종 여성들 자신 사이에서조차 행해졌던—실지로 여성의 지위에 관한 무지와 불이해에 근거한다. 이것은 여성이 이제까지 취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취하게 될 지위를, 여성은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만 해야 하며 그 생활을 가정생활에 국한한다는 소위〈자연적 직분〉(Natur beruf)에 한정시키는 것이다. 여성의 생활 밖에는 있는 것이나 가정적 임무와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전히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3) 하 기

사회 : 고종 19년(1882년) 한국은 오랜 세국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미합중국과 가장 먼저 통상 수호조약을 맺음으로써 문호를 개방하고, 계속하여 영국·독일 등 서방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1884년 갑신정변으로 인하여 개화당이 제시한 혁신정책은 종래 사회제도를 비판하고 있으며, 1896년 독립신문이 창간될과 동시에 여성단체가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분별폐지, 인민평등책제정에 따라 여성신분에 개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1899년 여성사회 활동, 여성운동이 시작되었고 이들은 축척반대연좌회모들 갖고 국가안일사태수습에 적극 참여하여 집단의 사표시를 행하였다. 이는 근대적 투쟁방법으로 입한 여성운동이었다.

종교 : 종래의 불교 유교 사마니즘적 종교관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우리나라가 문호를 개방하면서 서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와 가톨릭교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비교적 활발히 포교되었다.

교육 : 1884년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을 위한 기독교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이 창설되어 여성교육과 자율적 지위향상에 힘썼다.

또한 1903년에는 간호교육기관이 보구여관에서 시작되었으나 그후 1906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미국 선교사 간호원인 Esther L. Shields 교장이 창설한 세브란스 간호학교와 합류하게 되었다. 이는 간호교육사의 기반이 되었으며 1945년 광복시 까지 많은 발전을 하면서 서구식 간호학의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은 간호의 이념을 기독교 사상인 인간애의 사랑에 두었으며 임원환자를 위한 임상간호교육에 힘썼으며 역사와 더불어 환자의 질병 뿐 만 아니라 매일의 생활과 건강교육까지를 해보려는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양보다 질에 치중하는 간호교육의 전통을 세웠다.

이러한 기관을 통해 많은 간호학의 지도자적

인재를 양육하여 초창기 한국 전역에 퍼져 개척자적 간호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직업 : 이 시기는 현대간호의 도입기 혹은 개척기라 볼 수 있으며, 선교사업과 간호를 연결 지으므로서 이 사실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본다.

1881년 한국에 도착한 최초의 선교사 간호원은 영국 성공회 선교부의 Emily Heathcote 이며 그후 1892년에는 영국인 Elizabeth Webster 선교사가 1895년 노르웨이 선교사 Anna, P. Jacobson, 1897년 미국 선교사 Ester, L. Shields, 1902년 미국 선교사 Margaret Edmunds, 1920년 미국 선교사 Edna, Lawrence 등이 내한하여 한국 간호사의 창설을 이루고 있으며, 한국 간호사업과 교육 발전에 밀려들 역할을 해주었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그 당시 대문밖을 모르고 지내던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오로지 간호정신과 인류애의 사상을 가지고, 1895년과 1920년 두차례에 걸쳐 콜레라가 창궐하여 많은 생명을 앗아갈 때 방역대열에 참가하여 훌륭한 방역의 역할과 전염병 간호를 해 냈다는 사실은 놀라운 여성전문직 개발이라고 하겠다.

또한 1907년 구 한국이 일본의 침략으로 군대의 해산 명령이 있을 때 서대문 병영의 군대개이에 항거하여 싸움이 일어 났을 때 '일선에 나서서 상이군의 구급간호를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간호사업의 호시를 이룬 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 3. 제 3기 : 피식민 통치시대(1910년에서 1945년까지)

사회 : 1910년 한일합방이 되면서 일본의 총독정치가 시작되고 우리나라 국권은 일본에게 완전히 탈취당했으며 식민정책을 통해 우리의 민족정신을 제압하고 생존권을 위협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토의 40%를 조선총독부 소유로 하였고 저명인사들을 결거, 투옥, 고문하였고 언론활동도 완전 봉쇄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일제의 가혹한 압제에 굴하지 않고 3.1운동을 위시하여 국내의에서 저항운동, 독립투쟁을 계

속하였으며,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전하자 반세기의 어둡고 지리한 압제에서 해방이 되었다.

여성의 사회참여 : 한일투쟁에 지식층 여성이 적극 참여하면서 여성의 지위가 차츰 향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23년 대한간호협회가 창설되고, 1922년 YWCA 창설, 여성동우회가 발족되었으며, 1929년에는 근우회를 발족하여 모진시련 속에서도 꾸준히 교육의 승고한 이념을 심도 록 교육자들, 특히 사립학교 창설자와 여성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주어왔다.

종교 : 19세기 말엽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선교방책으로 시작한 교육의 평등사상에 입각하여 폐쇄된 전통생활 속에 강요당하던 여성에게 교육문제는 활발히 진행되게 되었다. 특히 기독교적 한국 교육이 여성교육에 끼친 공헌은 막대하여, 정규 교육 외에 복음운동을 통해 사랑, 평등주의 사상에 입각한 일부일처제 실천, 미신과 계급의식타파, 생활이나 의식 간소화 및 합리화 등의 제도개혁과 아울러 자기발견과 지위 향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직업 : 교육의 성과는 여성의 사회참여로 나타났다. 1900년대 초, 여자 간호원, 여자 의사, 여자 교육자들은 여성 계몽에 혁혁한 공헌을 남긴 개척자들이다. 이들은 애매속에 잠든 여성의 무지를 일깨우는 일이 너무 급한 일이라 생각하여 직업에 온 정성과 생명을 바치도록 차원 높은 봉사애 더 큰 의의를 두었던 초기의 전문직업인들이었다.

구한말에 도입된 서양식 간호와는 달리 식민정치의 더불어 도입된 일본식 간호는 강압적인 행정을 타고 왔으므로 처음부터 질적인 성장보다는 양적이고 형식적인 면으로 치우쳤습니다.

또한 일본식 간호란 독일간호학이 일본을 거쳐 온 것이므로 독일 자체에 있어서 간호학의 수준이나 간호원의 지위가 영미 양국만큼 학문적이고 독자적이 되지 못함때다가 당시 일본의 남존여비의 사상은 간호업무를 환자를 위한 간호보다도 의사를 위한 보조역할에 치중하게 만들었다. 여기에다가 가족제도의 영향이 합쳐져

서 입원환자는 대개 보호자에게 맡기고 간호원은 대부분의 시간을 외래진찰실에서 의사를 돕는 일을 했다.

또 이때 일본은 식민정책을 통하여 일본식제도와 특징을 가진 병원을 세우고 그 병원의 운영목적을 위하여 간호부 양성소를 많이 세웠다.

1930년대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930년대 간호교육 현황

	양성소수	입학수준	수업기간	책임자	실습경향
관공립계	17	고등소학교 2년 졸업 / 고등보통학교 2년 수료 이상	1½ ~ 3년	일본인 의사회원장	외래환자와 의사의 보조 중심
미손계	8	고등보통학교 2년 졸업 / 고등보통학교 이상	3 ~ 4년	선교사 또는 간호원 출신의 병원장	간호사로서의 입원환자 상심

이 무렵 간호 교육기관의 증가와 더불어 간호학을 지망하는 학생수가 많아 졌는데 그 이유는 구한말 신교의 도입으로 여성들의 일반적인 교육열이 증가함과 동시에 그 당시 사회상에 기인된다고 봅니다. 즉 의정하에서 여자로서 우리민족을 위하여 자연스럽고 멋있게 일할 수 있으며, 여성운동이 싹트면서 여성들도 경제특권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돌기 시작했고, 여성들이 택할 수 있는 직종이 매우 국한되었으며 더우기 특수직업을 위한 준비과정이란 간호학과정에 별도로 없었고, 그때만 해도 대개 딸들을 객지에 보낸다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안전성으로보아 문제가였는데 간호학교는 학비의 면제, 기숙사 시설등으로 두 가지가 다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당시 특기할만한 사실은 총독부령으로 1914년 7월 산파직의 법규를 반포하여 산파양성의 제도와 시험을 통한 면허제도를 규정했고, 동년 10월에 간호업무의 법규를 반포하여 산파와 간호원의 두가지 여성 전문직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양성제도 역시 법적으로 제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기독교계통 간호학교 출신 간호원들을 선두로하여 보건의호

특히 모자보건간호가 실시되었다. 예를 들면, 1923년 기독교 공중보건회관인 태화여자관이 서울에 조직되어 영아부를 운영했고, 1924년 공주에 처음으로 탁아소와 우유보급소가 설치되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구했으며, 산진간호와 가정분만도 시작하였습니다. 또 1931년 인천에 육아건강지도실과 자모회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대구, 원산, 개성, 평양에 영아부가, 회령, 진주, 통영, 광주 및 강계 등에 공중보건소가 설립되었다.

이와같이 미국 및 캐나다 선교사 간호원의 역할로 공중 보건간호는 많이 개척되어 우리나라 간호교육은 물론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4. 제 4 기 : 해방이후 부터 현재까지

사회 : 해방직후 남한에는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행정장관을 필두로 각 부서에는 한국인 민정 책임자와 더불어 군정고문관들이 배치되어 새로운 질서를 잡게 되었으며 1948년 정부수립과 더불어 여성도 시민권, 투표권, 참정권을 획득했으며, 1960년 공포된 헌민법에서는 재산상속상다소의 차별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남자와 동등한 법적지위를 확보하였다.

또한 많은 여성단체가 조직되어 사회제도상의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즉 결혼자유, 인신매매금지, 재산균등배분, 봉건적 가족제도 및 도덕인습 타파를 표방하고 나섰다. 여성의 경제자립을 꾀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81년까지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리에 끝마치고 현재 제 5차 사회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직업여성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총 취업자중 여성취업자의 구성비가 1963년에서 1967년에 이르기까지는 35%를 차지했으나 1973년에는 37.8%, 1975년에는 39%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든 사회계층에 걸쳐 기혼여성의 취업율이 최근 급

속히 증가하여 전체 결혼한 부인가운데 1/3 이상이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대생들의 직업활동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 결과도 졸업 후 취업 희망자가 90%나 되며, 결혼과 관계없이 계속 취업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47%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직업분야에서의 남녀 차별이 호전되어가는 것과 더불어 기혼여성의 취업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같이 여성의 취업율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 ① 산업화에 따른 노동력 수요의 전반적인 증가 및 직업의 다양화로 인한 여성취업에 적합한 직업분야의 출현
- ② 남녀평등 사상의 보급으로 인한 여성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사회적 지위 획득에 대한욕구
- ③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對 男性 경쟁에서의 성공
- ④ 금전적 도움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자부심
- ⑤ 핵가족 및 편리한 가정기기 사용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대 등 가족내의 여성에 대한 구속조건의 약화등 들 수 있다.

여성의 가정에서의 지위 : 과거 이조 500년 동안 봉건제도의 압제속에 남자가 원하는 인형으로, 남자의 시종꾼으로, 무능력자로 취급당하며 살아온 여성이 해방이후 여성의 법적지위 향상과 더불어 가정에서의 지위도 향상되어 가정을 정신적, 육체적 안식처가 되도록 총명과 예지를 증동원하는 사회문화 창조에의 기수로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가정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는

1968년 서울시 조사에 의하면

“남편이 사업관계를 부인과 의논한다”가

89.2%

“생활비를 부인이 맡아서 관리한다”가 66.5%

“자녀교육은 부인과 상의한다”가 67.3%로 나타나 부인이 복종하던 지위로 부터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가정안에서의 지위향상 및 발언권 강화는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아울러 여성자

신의 자질이 향상된 까닭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허다한 편습상의 차별과 편견이 전재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육 ; 여성사회가 오늘 만큼이라도 발전된 것은 오로지 교육의 힘이라 하겠습니다.

이화학당을 효시로 한, 여성교육이 해방이후 전채적으로 팽창하여 1965년에는 225,842명의 여학생을 배출하였다. 현재에는 특히 여자 대학생의 수가 전체 대학생 수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30년 여자 문맹자가 전 여성 인구의 90.5%이던 것이 1963년에는 19%로 감소일로에 있다.

이상의 통계자료는 여성의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증명해 준다.

여성은 그 능력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잘못된 통념과, 여자는 남자보다 천하다는 관념에서 여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불균등하게 주고 있는 관습적 차별은 오직 교육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광복 이후의 간호의 위치는 현대간호의 성장기라 볼 수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으나 잇따른 38선의 비극은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간호사업에 있어서도 한낱도 전체의 간호실태를 논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38선 이남에는 미군정을 통해 전쟁중 잠시 멀어졌던 간호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간호교육, 간호행정, 간호전문직 조직, 간호협회 활동 등 각 방면을 통해 이루어졌다.

1950년 6.25동란으로 정든되어가던 간호학교들과 의료기관들은 많은 손실을 보았으나, 전후 계속되는 간호업무의 필요성과 간호지도자들의 노력의 결과는 오히려 간호직에 대한 사회인식을 높여 주었으며, 경제적인 외국의 지원과 우방 여러나라 간호원들의 협조는 간호분야의 정상부구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1960년 4.19의거나 1961년 5.16 혁명은 직접적으로 간호에 큰 변혁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정부의 간호사업 행정체제를 살펴보면 1945년

12월 보건후생부안에 의무국, 예방의약국, 약무국, 후생국, 위생국 등과 더불어 간호사업국이 설치되었으니 우리나라 역사상 중앙행정조직안에 간호 사업을 위한 간호원의 직제가 마련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그후 1948년 8월 정부수립 이후 정부 행정기구의 축소로 간호사업국은 보건사회부내에 있는 의정국내에 간호사업과로 자리잡게 되었고, 육군에는 정식으로 한국 간호장교단이 조직되었다.

임상간호 : 취업이 등록된 간호원중 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병원이다. 또한 역사적인 배경이나 전통으로 미루어 보아서 최근까지도 병원 간호업무는 간호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성을 띄고 있다.

이에 따라 임상간호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질병중심의 간호에서 인간중심의 개별적 간호를 지향하여, 그 방안으로 전인간호의 개념에 입각한 간호로서 개체 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적방법으로서의 간호과정의 이론을 충분히 활용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간호의 영역은 그 분야가 세분화되고 높은 수준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며 전문화되고 있으므로 각 분야별 전문간호원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더불어 새로운 전문지식을 얻고 이를 간호업무 수행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하여 임상에 근무하는 간호원은 계속 연구를 거듭하고 있으며 또한 병원자체에서도 이를 위하여 실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종합병원은 간호대학생들의 실습현장이 되고 있으므로 그 간호행정 및 간호요원의 수준은 매우 향상된 위치로 발전되고 있다.

간호교육 : 해방후 고등간호학교로 통일되었던 모든 간호교육기관은 대한민국교육령에 의하여 1957년을 전후하여 간호고등기술학교로 변경될

과 동시에 사실상 인가 및 감독권은 문교행정에 속하게 되었다. 그후 다시 1962년 전국 23개 간호고등기술학교 중 19개교는 초급대학령에 준한 인가를 받은 각종 학교로서의 간호학교로 승격되었다. 동시에 문교부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4개 학교는 학생모집의 정지를 명령하고 기한부 폐지를 지시함으로써 간호학교의 최저 입학수준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통일하는 학제상의 기본자질의 발전을 보게 되며 동시에 간호교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오게되었다. 1955년에는 의과대학내 간호학과로 정규 4년제 대학과정으로 운영되었으며 1968년부터는 연세대학간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이 단과대학으로 승격 함으로써 「대학사회에서의 간호학의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

또한 1970년 문교부의 학제변동방침의 일환으로 초급대학령에 준한 각종학교에 속했던 간호학교들이 대부분 개편되었는데 이 두 제도는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다른 전문직과의 평형에도 어긋나는 동시에 제도적인 모순을 갖고 있던 간호고등기술학교는 1973년 부터 정비단계에 들어갔다.

또한 1960년 이후 현대사회에서의 여성 역할의 증대, 건강사업 전달체제에 있어서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건강관리설비 및 전문요원 확보의 긴급성, 간호현상을 체계적으로 시험하기 위한 연구의 시급성,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간호교육 심화의 필요성에 비추어 전문적 지식과 인품을 지닌 간호학자, 전문연구인, 교육 행정자를 육성하기 위한 대학원 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현재 전국 14개 4년제 대학과정 중에서 12개 대학교 대학원에서 간호학전공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또한 1978년 한국 최초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간호학전공 박사과정이 연세대학교에 개설되어 이미 1982년부터 간호학전공 이학박사를 배출하고 있다. 현재는 2개의 대학교에 개설 중이나 앞으로는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 뿐 아니라 우리나라 간호학자들이 해외에서 박사수여후 과정(Post Doctorate Course)를 택 하고 있는자도 있으며 또

한 국제기구에서 연구자로 또는 보건개발 자문관으로 혹은 대학의 교수로 활약하는 여성들이 허다하다. 이제 간호학은 대학사회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한국 간호학의 위치는 전문직업인으로써 사회에 봉사하며 응분의 대우를 받는 여성직업인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연구 분야에도 나날이 발전하는 현황이며 수많은 학위논문은 임상이나 지역사회 전역에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사업에 참여하는 영역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있어 그의 사회적 위치는 중요시 되어가고 있다.

지역사회간호와 건강상태 ; 우리나라 헌법 제 30조는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보건·의료 분야의 방향을 명시해 주고 있으며,

1977년 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건강관리의 형평과 효율을 위해 또 의료제도의 개발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 모두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지역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을 연결하는 체계적인 보건의료 체제의 확립, 보건의료망의 확충, 보건의력공급의 개선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보건간호원이 활약하고 있다.

1982년 부터 실시되는 제 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정의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일차보건의료를 국가보건 정책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일차보건의료의 실현화 방안으로 1980년 12월 「농어촌 특별초치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1981년부터 보사부 주관으로 여러 교육기관에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위탁 시행한 바, 이 교육을 이수한 보건진료원의 수는 1983년 현재 710명에 달하며, 전국 각지에 분산되어 국민의 건

강,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보건개발 및 진료권을 가지고 확대된 역할 기능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 발전된 수준높은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

간호 전문직 중앙단체인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본 간호원의 위치; 한국의 전문직 간호원의 중앙단체인 간호협회의 위치는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간호원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사려된다. 대한간호협회는 한국 여성단체중 그 규모가 질적 양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큰 조직단체로서 그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그 사업의 공헌도가 높이 인식되고 있다. 1923년 발족되어 금년 60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1949년 국제간호협회의 정 회원국이 되었다. 또한 1953년 대한간호 간호학전문지를 발간하여 회원들의 학문 및 연구를 위해 학문적 문헌적 의사소통을 가능 하게 하였으며 1976년에는 대한간호협회기관지 신문“간협신보”를 발간하여 회원은 물론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1957년 사단법인체로서 간호원중앙회로 인가되었다.

1970년 대한간호협회 회관을 신축하였으며 1972년에는 한국간호원의 윤리강령을 선포하여 간호원 스스로의 윤리관을 향상하게 함은 물론 우리 사회에 간호의 윤리관 또한 그의 활동의 근본이념을 우리사회에 선포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돈독케 하였다. 1973년에는 대한간호협회 50주년 기념 전국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전문직 간호원의 국민복지 향상과 건강증진에 사회적 국가적으로 위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알리고 또한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대한간호협회 산하에 단체로서 간호학회(1970) 보건간호원회(1972)가 창설되었으며 이는 나중 독립단체로서 발전하였으며 임상간호원회(1976)가 창설되었다. 1975년에는 국가안보구급간호대를 조직하여 국가비상시에 대비한 국민보호운동을 전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일찍이 건강 인권을 주장한 결과 1980년에는 간호원에게 일차진료권이 부여되어 농어촌 지역에서 건강간호사로서

지역사회건강사업에 공헌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의료법에 간호원의 임무중 보건 활동이 삽입되었다. 1981년에는 대한간호협회장이 간호원으로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국제간호협의회 이사국이 되었다.

### III. 결 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간호원의 위치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 여성의 위치 속에서 찾아 볼 수 있었으며, 그 위치는 그 시대의 역사적 편천과 함께 변천되고 발전되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 볼 수 있다.

선사시대에는 여성의 성적(性的) 힘과 생식능력에 비추어 신비의 능력을 지닌 존재로 숭배했으나, 부족사회가 되면서 급속문명의 등장으로서 서서히 가부장권(家父長權)이 나타나 여성과 남성간의 관계는 종속관계로 변화되었으며, 삼국시대에는 특수한 여성만 당당한 위치를 차지하였을 뿐 일반여성은 정치·사회적으로 무시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남녀가 내외하는 일없이 자연스럽게 만났고 열녀상과 더불어 의무상이 똑같이 시행되는 예도 있었으나 여성은 궁녀, 무녀, 기녀와 같은 비천한 직업에만 종사하였었다.

이상과 같이 근세조선에 이르기 까지 옛날 우리 조상들은 병들고 약한자를 어떻게 돌보았으며, 그들을 돌보는 자들의 위치를 어떻게 보았는지 기록된 바가 없어 자세히 알 수는 없었다.

다만 직업여성이 처음으로 대두된 것은 1406년(太宗 6년)이었으며, 의녀제도가 그의 효시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간호사업의 발전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직업의 발달사라고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주었다.

그 후 기독교가 이 땅에 도입되면서 교육의 평등사상에 입각하여 1884년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이 창설되고, 1899년 여성운동이 시작되었고 이와 동시에 선교사 간호원들의 내한으로 현대간호사업이 도입되고, 간호원 양성기관의 설립으로 선택 받은 자로서의 사회·봉사에 대한 책임감이 컸던

여성들이 간호직을 택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간호원은 보건 및 간호 행정 부문, 간호 교육 연구 사회봉사 부문, 임상간호 부문과 지역사회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점차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그 교육수준이 계속 향상되고 있으며, 전문직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적, 학문적 위치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는 현황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간호원의 활동은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들은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와 보건개발사업에 적극참여하여 중요한 위치에서 계속 활약하고 있다.

나에게 주어진 제목이 다만 간호원의 위치에 대한 역사적 고찰, 연구만을 할 것을 제안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발전되어 가는 역사속에 문제는 더욱 많아져 가고만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여성문제, 여성의직업문제, 전문직 간호원의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른 문제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떠한 특수층의 희귀한 위치 만이 높아진 것을 기준으로 여성의 위치나 간호원의 위치를 측정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 때문에 현재의 국가 및 사회질서에 기초한 남녀의 동권—이것이 시민적 여성운동의 목표다—을 실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인간을 인간으로, 또한 하나의 성(性)을 다른 성에 증속시키려는 모든 한계를 제거해야 한다. 이와 같이 여성문제의 해결은 사회문제의 해결과 연관된다. 따라서 여성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 인류의 문화문제로서 사회문제의 해결을 기치로 내세우는 것이 정당한 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노정현, 한국 근대화론—문제와 전망—, 서울: 박영사, 1980.  
 대한간호협회, 등불을 든 여인, 서울: 미한적실자사,

1977.  
 대한 YWCA연합회, 한국 YWCA 반백년, 서울: 대한 YWCA 연합회공보출판위원회, 1976.  
 백낙준, 나의 증강록, 서울: 정음문화사, 1983.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3.  
 성병열역, 여성과 사회, 서울: 한밭출판사, 1983. (2nd ed.)  
 손승희역, 새여성, 새세계, 서울: 현대사상사, 1980.  
 손인실, 한국여성교육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7.  
 양규삼, 조선남감리교 30년 기념보, 서울: 크리스찬 타이프사, 1982.  
 이경희, 민주주의 문화와 주체성, 서울: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1983.  
 이길상, 화학사상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1.  
 이영복, 간호사, 서울: 추문사, 1976.  
 이종익, 제두형정론, 서울: 박영사, 198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집위원회, 한국여성사 I,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집위원회, 한국여성사 II,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집위원회, 한국여성사 III,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8.  
 최신덕, 인류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9.  
 NLN Division of Research, *Some Statistics on Baccalaureate and Higher Degree Programs in Nursing 1974~1975*, New York: National League for Nursing, 1976.  
 NLN Division of Research, *Some Statistics on Baccalaureate and Higher Degree Programs in Nursing 1975~1976*, New York: National League for Nursing, 1977.  
 NLN Division of Research, *Some Statistics on Baccalaureate and Higher Degree Programs in Nursing 1974~1975*, New York, National League for Nursing, 1976.  
 NLN Division of Research, *Some Statistics on Baccalaureate and Higher Degree Programs in Nursing 1975~1976*, New York: National League for Nursing, 1977.  
 NLN Division of Research, *Nurse-Faculty Census 1976*, New York National League for Nursing, 1977.

1970, "Directory of Consultants to Nursing Administration," *Th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9, No. 8, Aug., 1979, pp.5~29.

Yonsei Univ., *Yonsei University Bulletin 1983~1984*, Seoul: Yonsei Univ. Press, 1983.

#### 보고서 및 정기 간행물

김활란 박사 이화간속 5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보고서  
앞으로 오는 50년과 여성의 역할, 서울:이화여자  
대학교, 1968.

'83년의 한인 간호원 총람 ; CA.: 재미간호신보사,  
1983.

변도윤, "여성의 일할 권리와 의무", 여성, No. 197  
(1983.5), p.7.

손진옥, "세계 여성계 동향", 여성, No. 195, (1983.  
3), pp.55~56.

정경균, "한국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변천", 여성, No.  
197 (1983.5), pp.32~34.

정경균, "국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사회단체 대토론회", 여성, No. 197 (1983.5), pp.9~27.

정경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전문)", 여성, No. 198, (1983.6), pp.17~23.

#### 〈73페이지에서 계속〉

다. 이렇게 많은 양, 복잡한 일이기때, 많은 간호원들이 시작하기에 주저하고, 또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하여,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이 기구에서는 질이 좋은 간호원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간 간호원이 주체가 된 이 기구가 면면히 이어 내려온 것은, 이 기구에서 일하고 있는 한사람 한사람의 간호원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이기고, 오직 환자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각 개인의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환자들의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아픔을 잘 파악 하고, 때로는 어머니로서, '교육자로서,

또는 인생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지역사회간호의 특성, 특히 가정 방문 간호의특성은, 한국 간호원으로서, 이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간호학만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구는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우리 간호원들이 계속 진출해 나갈수 있는 좋은 분야임에는 틀림없겠습니다. V.N.S.의 일면을 보며,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설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대단히 기쁘겠습니다. ☺